

광주대교구 병원사목을 소개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병원사목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박상선 신부입니다. 광주대교구 병원 사목과 원목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구가 가톨릭계 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사목을 시작한 것은 2004년 9월부터입니다. 당시에는 각 병원마다 원목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수도자도 파견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개의 일반병원에 천주교원목실이 갖추어져 있고 6명의 수도자가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5명의 사제가 병원사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상병원을 구체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병원사목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도 서울대교구나 타 교구처럼 주로 400명 이상의 대형병원을 대상병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대상병원 10여 곳 중 7개 병원에서 원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광주지역 5개 병원(보훈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첨단병원, 화순전남대병원)과 목포지역 2개 병원(중앙병원, 한국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광주지역에는 3개의 노인요양병원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천에는 대형병원인 성 가톨릭 병원이 있지만 예수의 까리타스 수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원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구 병원사목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선 헨리코 신부
광주대교구 병원사목부



광주교구 병원사목의 원목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환우와 보호자들을 위한 영적돌봄입니다.

각 병원 원목실에서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와 보호자들을 위해 원목수녀와 원목봉사자들이 매일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방문하여 기도와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한 원목사제는 매주 그들을 위해 평일미사와 주일미사를 봉헌합니다. 특히 평일미사를 봉헌한 후에는 각 병실을 순회하며 거동이 불편해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환우들에게 병자영성체나 병자축복기도를 바쳐드립니다. 필요시에는 영적상담이나 고백성사, 병자성사 등을 베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사목입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직원들이 병원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각 원목실의 원목수도자는 직원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도모임을 운영하거나 예비자를 발굴하여 교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목사제는 매월 교우회 미사를 봉헌하고 필요시에는 영적상담이나 고백성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피정이나 성지순례를 통해 교우들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자 관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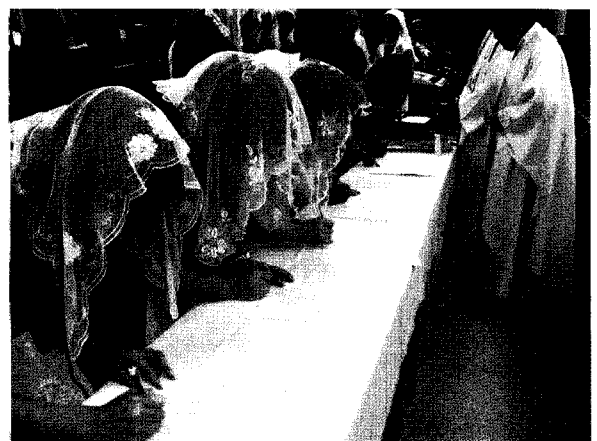
병원에서 원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목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제나 수도자 한사람이 대형병원을 맡아 완벽하게 원목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례로 가톨릭에서 운영하

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은 한 병원에 다수의 사제와 수도자를 원목자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상이 넘는 대형병원에 수도자 혼자서 원목을 하고 있고, 사제도 몇 개의 병원을 함께 맡고 있는 실정에서 효율적인 원목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교육된 봉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원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제와 수도자와 봉사자라는 3박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아떨어질 때 양질의 원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사목에서는 매월 원목봉사자 모임과 미사를 거행하고 있고, 이때 필요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년에 2차례 전체교육을 실시하는데, 전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 중 특이한 점은 파견미사 시 봉사자 서약식과 십자가 수여식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자 서약식은 기존 봉사자일 경우, 서약을 갱신하고 신규 봉사자일 경우에는 제대 앞에 나와 하느님께 약속을 드림으로써 봉사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서약문의 일부인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원목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 저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제단에서 서약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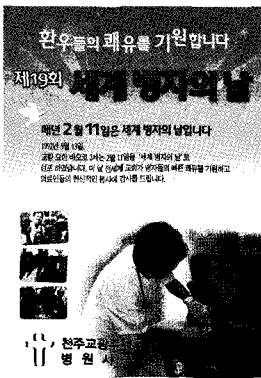
이 서약문은 코팅을 한 후 각자에게 나누어주고 원목봉사를 나오기 전 반드시 읽고 오도록 합니다. 또한 신규



봉사자에게는 서약식 후 십자가를 수여하여 매 봉사 시 그 십자가를 착용하고 봉사하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착용토록 하는 것은 모든 봉사를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도움과 이끄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을 통해 모든 봉사자들에게 원목봉사를 마친 후 반드시 봉사자 일지를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지기록을 매우 어려워했고 어설픈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일지도 잘 기록 할뿐 아니라 기록을 통해 더욱 성장해 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교구 병원사목의 특이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2년 전부터 매년 2월 11일 '세계 병자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날 저희는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병자의 날' 행사를 위해 교구장 주교님 이름으로 각 병원장들에게 협조공문을 띄우고 약 2주전부터 각 병원의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병원입구에는 배너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당일을 전후로 '환우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생활성가 가수인 김정식 로제리오 형제를 초대하여 조선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환우들과 보호자 그리고 병원직원들을 모시고 행복한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행사가 끝난 후 환우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이 있었고 이런 행사가 다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병자의 날'에도 김정식 로제리오 형제를 초청하여 보훈병원과 전남대병원 그리고 조선대병원에서 '환우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음악회 중에 이태석 세레자 요한 신부님의 활동을 짧게 편집한 동영상을 상영하여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 조선대 병원에서의 음악회가 광주평화방송을 통해 녹음방송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병자의 날 행사를 위해 저희 병원사목에서는 환우들에게 필요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병원사목 대상병원의 모든 환우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3,000개, 올해 5,000개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환우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부활 때는 인근성당의 후원으로 부활달걀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5,000~20,000개 정도의 부활달걀을 후원받아 아름답게 포장하여 입원한 모든 환우와 보호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환우들과 보호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원목자나 원목봉사자들 그리고 교우회 모두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원목실에서는 병원직원들을 위해서도 부활달걀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선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절과 성탄행사입니다. 위 두 행사는 모



든 환우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정, 추석, 성탄은 원목실에서 천주교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출한 행사를 치릅니다. 명절 때는 떡과 과일을 나누고 성탄 때는 조출한 선물을 준비하여 나누었습니다.

병원사목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기간 동안 주로 병자들을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루카복음은 공생활 서두에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루카 4,40)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어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셨다.”(루카 9,1-2)

“제자들은 떠나가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마르 6,12-13)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가 병자들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톨릭계 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까지 원목활동을 넓히

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속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병원은 속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범 교구적인 차원에서의 사목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서비스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에는 누구나 병원신세를 져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사가 아닌 경우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사목이 활성화 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소명이요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받고 일하는 원목자가 저희 교구에 13명이 있습니다.(사제 5명, 수도자 7명, 평신도 1명) 이들은 병원현장에서 자기에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교구에 더 많은 원목자가 배출되어 더 많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고 보내셨다.”(루카 9,1-2)

- 아멘 -

